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박 36選

# 禪·教 상호 경쟁 발전... 종파불교 전성시대

## 12. 교종과 선종의 공존

475년간의 고려시대 전체를 놓고 볼 때 전기에는 교종이 우세하였고 후기에는 선종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종과 선종이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 대립하는 구도였다.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이 양대 종단을 이루었고 왕실과 문벌귀족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였다. 선종은 고려 초에 9산 선문이 성립되면서 토대가 다져졌고 11세기 말 선종의 하나로 천태종이 개창되면서 교종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후기에는 교종이 쇠퇴하고 선종인 조계종이 융성하였고 고려 말에는 임제종 법맥 전수가 유행하고 간화선종이 일세를 풍미하였다.

교종 중에서 화엄종은 7세기 이후 의상 계통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사상적 성과를 내면서 교단의 주류 세력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9세기 전반부터 선종이 도입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화엄 쪽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후삼국이 대치하던 10세기 초에 화엄의 우위를 전제로 한 교화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새로 개설된 승과 시험에 반영되었다. 균여는 또한 화엄의 신중신앙과 보현신앙을 강조하고 의상에 의해 처음 제시된 5적 관법을 행하는 등 실천도 중시하였다.

이후 화엄종에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나오면서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불서 간행과 유통에도 큰 업적을 세웠다. 의천은 문종의 4째 아들로서 11세에 화엄종에 출가하였고 13세에 교종의 최고 승계인 승통이 되었으며, 이후 화엄종과 왕실의 관계는 확고해졌다. 의천은 고려와 국교가 단절 중이던 송에 비밀리에 건너가서 14개월간 머물렀고, 송대 화엄종을 중흥시킨 진수 정원에 계 화엄을 직접 배웠으며 구할 수 없었던 불교 전적을 서로 주고받았다. 당 말의 폐불과 5대 10국의 전란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사라진 불서들 중 고려에서 전해지던 책들이 당시 역수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광종대에 보내진 천태학 전적과 의천 때의 화엄 전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천은 정관(정관)이 지은 《화엄경소》에 주해를 붙이고 《화엄경》과 같이 합본해 간행한 정원의 《화엄경소》 등을 얻어서 왔는데, 이 또한 고려 화엄학이 교학적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천은 교학의 습득과 관행의 실천을 함께 하는 교관겸수를 강조하였다. 이는 불교의 교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심성의 본래 모습을 체득하는 관행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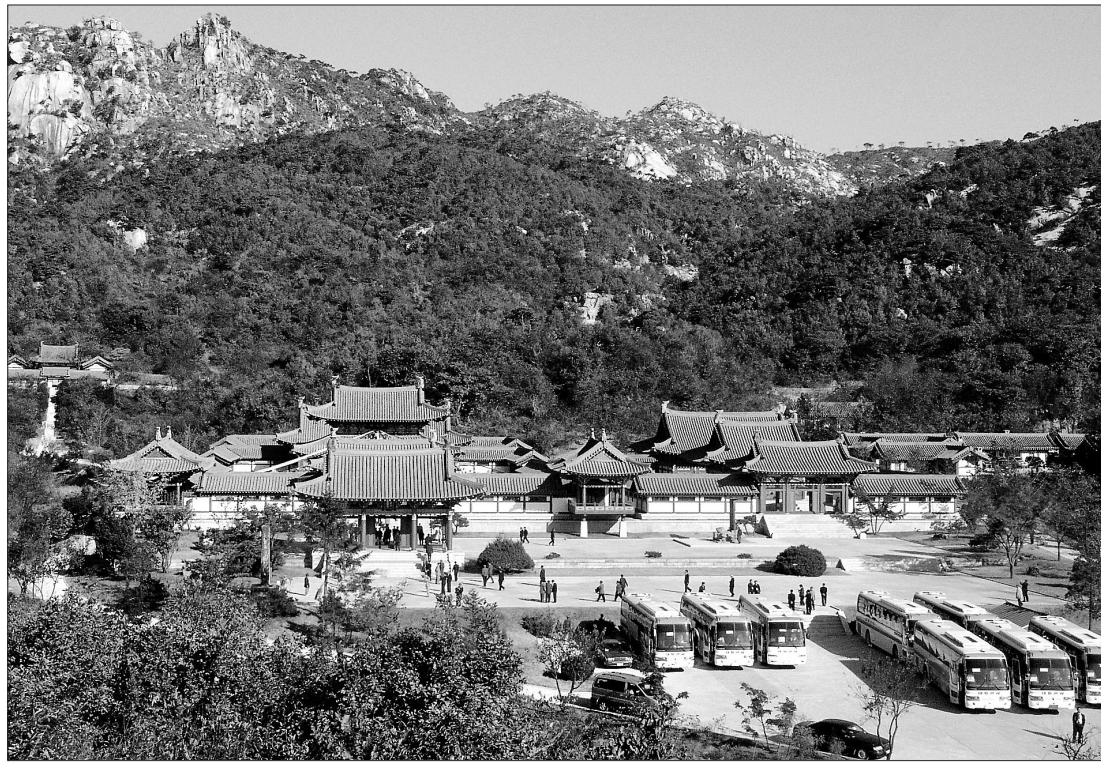
순천 선암사의 대각국사 의천 진영. 왕족으로서 출가한 의천 국사는 고려 전기 교종 계열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시한 것으로, 일심의 체득을 강조한 정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송대의 불교는 선종을 중심으로 정토, 화엄, 천태, 《능엄경》, 《대승기신론》 등이 두루 중시되는 등 융합적·포괄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정관과 함께 종밀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의천도 화엄의 불교일승을 강조하면서 화엄의 우위를 주장한 법상이나 균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대신 정관의 교관겸수 및 포용적 자세를 승계하였다. 의천은 또 신라의 화엄조사 의상과 함께 원효를 선양하였는데, 특히 원효의 회통적 사상을 강조하고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천은 교학 학습을 소홀히 하는 선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어서 종밀이 주장한 선교일치까지는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 화엄에서 정통설이 된 조통설은 진수 정원이 세운 마명-용수-두순-지엄-법장-정관-종밀의 7조설이었다. 이에 비해 의천이 주장한 화엄 9조설은 7조설에 천천(세천), 불타, 광통 해광을 추가하고 마지막의 종밀을 뺐 것이었다. 여기서 종밀을 제외한 것은 의천의 선종 기피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또한 화엄교학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지론학 계통 조사들을 앞에 대거 포진시킨 것에서 의천, 나아가 고려 화엄학계의 독자적인 불교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고려의 법상종은 유식학에 기반을 둔 종단이다. 유식학은 인도 유가행파의 조사 마이트레야(미륵)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래불인 미륵과 이름이 같아 그 화신으로 추앙되었다. 그로 인해 고려 법상종의 신앙은 미륵신앙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통일신라 진표 계통의 점찰 신앙 또한 계승되었다. 특히 진표가 미륵에게 직접 받았다고 전해지는 점찰 간자를 석종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치고 후원을 받으면서 법상종은 종파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상종이 주요 교단으로 위상을 다지게 된 것은



2005년 복원을 마친 개성 영통사의 전경. 대각국사 의천은 11살에 출가해 영통사에서 수학했다. 이후 의천은 송에 유학하였을 때 화엄 뿐 아니라 천태를 수학했고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탑을 참배한 후 천태종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기도 했다.

목종이 원찰로 승교사를 창건하고 다음 왕인 현종(재위 1009~1031)이 현화사를 짓고 법상종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면서부터였다. 현종은 부모가 불미스러운 일로 죽임을 당한 뒤 외삼촌인 성종의 배려로 궁에서 살았는데, 아들 목종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천추태후의 압박을 피해 승교사로 출가하였다. 이후 천추태후의 암살 음모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현종은 목종에 이어 다음 국왕이 되었고 부모

### 고려 초기 교종·후기 선종 '우세'

### 의천, 천태종 창종... 교종 발전 전인

### 광종 시기 전후해 구산선문 확립

의 명복을 빌면서 원찰로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현화사에는 송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 수입되어 봉안되었고 진신사리를 안치하는 등 법상종 중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이처럼 법상종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종의 주요종단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고려의 최고 문벌귀족 가문인 인주 이씨 출신이자 문종 비의 동생인 소현(1038~1096)이 승과 합격 후 최고위 승직을 맡게 되면서 법상종은 더욱 발전하였다. 소현은 금산사에 광교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유식학 문헌 32종 353권을 간행하였고, 중국 법상종 조사 현장과 규기의 상을 안치하였다. 또 현화사에는 해동 법상종 조사 6인의 상을 봉안했는데, 그 중에는 신라 유식학의 거두 태현과 함께 원효가 포함되었다. 당시 문종은 다섯째 왕자 왕규를 소현에게 출가시켜 화엄종에 이어 법상종 교단마저도

왕실이 주도하려 하였다. 하지만 왕규가 역모에 연루되어 쫓겨나면서 왕실과 법상종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 대신 문종은 자신의 진전사원으로 화엄종 중찰격인 흥왕사를 창건하였고 이후 화엄종과 왕실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법상종 또한 인주 이씨 출신 승려가 종단을 이끌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많은 정치적 부침을 겪고 12세기 중반 이후에는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선종은 9세기 전반부터 도입, 정착되면서 지방의 산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고려 초에 여러 산문들이 정리되면서 주요 산문을 중심으로 한 9산 선문이 성립되었다. 개경 지방의 유력한 토호 출신으로서 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던 고려 왕실도 원래부터 선종에 대한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더욱이 새로 고려를 창업하면서 중앙과 지방 세력을 연결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데 선종을 적극 활용하였다. 9산 선문은 광종대(재위 949-975)를 전후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산조의 활동 시기로 볼 때 도의의 가지산문이 제일 처음 생겨났고 회양산문, 실상산문, 동리산문, 봉림산문, 성주산문, 사굴산문, 사자산문, 수미산문의 순으로 성립되었다.

고려 선종은 임제종, 조동종처럼 선의 기풍에서 차가 나는 중국의 선종 5가와는 달리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적 사물관계를 기준으로 한 산문 전통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회양산문의 개조로 추앙되는 도현은 북종선을 표방하였지만 그 손제자 공양은 남종선을 선양하였다. 이처럼 산문의 적전 계보 안에서 선종이 서로 다른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고려 중기에는 9산 선문을 통틀어 선적종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전하며, 의천에 의해 선종으로 천태종이 개창된 후에는 그와 구분하기 위해 기존 선종을 조계종이라고 칭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 선종의 5가 선종이 모두 유행

되었다. 그 중 법안종이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광종이 선발한 선승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 도입해 오게 하였다. 당시는 정치적 통합과 함께 분열된 불교교단의 통합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광종은 남악과 북악으로 대립해 오던 화엄종의 갈등을 균여를 통해 해소하려 하였고, 여러 산문이 난립하던 9산 선문의 선종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법안종은 《종경록》을 지은 영명 연수의 선교일치, 선과 정토의 겸수 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종이면서 교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사상과 교단의 통합 및 조화라는 불교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하지만 광종 사후 법안종은 중앙 종단으로 세력을 키우지 못했고, 이후 의천의 천태종 개창 때 인적 풀을 제공하게 된다.

고려 중기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공안선이 도입되었다. 뒤에 국사가 된 담진이 공안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문자선을 수학하였고 제자 탄연은 임제종 계승을 자임하였다. 공안선은 임제종 간화선 수용의 전 단계로서, 심성 문제를 다룬 《능엄경》, 《기신론》 등이 중시되고 거사불교가 성행했던 송의 시대적 조류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고려에서도 문벌귀족 사이에서 거사불교와 공안선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조동종 선종도 고려에 전래되어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그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는 등 선사상 및 수행기풍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고려 전기까지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이 불교교단을 대표하는 3대 종단이었다. 그런데 의천이 천태종을 세우면서 12세기부터는 4대 교단 체제가 확정되었다. 법화 천태사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중시되었으며, 광종대에는 고려에 전해오던 천태학 전적을 중국의 오월(보내 송대에 천태종이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고려 출신 승려 의통(927-988)은 중국 천태종의 16대 조사가 되었고 제관(?-970)은 천태 교판을 정리한 천태학 입문서 《천태사교의》를 지어 중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고려에서 천태종 종단은 의천의 국후 인예태후와 형인 숙종의 후원에 의해 1097년 국창사가 창건되면서 성립되었다. 이전에는 승과를 화엄종, 법상종, 선종에서 각각 치렀는데 이제 천태종 승과가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의천은 송에 유학하였을 때 화엄 뿐 아니라 천태를 수학하였고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탑을 참배한 후 천태종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였다. 이는 천태의 교관겸수 가르침에 공감하였기 때문인데, 의천은 이론의 탐구나 참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여 균여 계통 화엄과 함께 당시 선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특히나 선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천태종을 창설하게 된 이유가 운대 선종의 개혁이라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 천태종에는 법안종 계통을 포함한 기존의 선종 승려들을 회유하여 끌어들이었는데, 당시 선종의 대표자 중 하나인 가지산문의 확립은 이를 거절하면서 선과 교가 뒤섞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의천과 속종 사후 기존의 선종이 다시 세력을 되찾으면서 천태종 내에서 의천계가 약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천태종은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교외 관행의 겸수를 내세우며 주요 종단으로 존속하였다.

## 원순스님께 듣는 부처님 마음으로 본 대승기신론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저녁 7시  
강의기간 | 2015년 10월 19일 ~ 2016년 2월 29일  
장 소 | 부전동 묘광선원(부산불교실업인회법당)

마명보살은 각자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삼세에 여일할 '진어'의 성품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망념을 여의어 바르고 큰마음을 일으키라'며 『대승기신론』을 저술하셨습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우리가 진어의 문에 나아가야 하는 까닭과 방편, 그래서 얻어질 수승한 이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잘 수지하여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지방세계 두루 비추는 지혜의 가르침에 감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훈습의 장이 부산 도심에서 열립니다.

원순스님께 들려주는 『대승기신론』 강의가 오는 19일부터 4개월간 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심 있는 불자님들과 진어의 세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하시어 법을 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 대승기신론 원효 소·별기·원순스님 역서(강의장에서 구입가능)  
수강료 | 월 5만원 문의 | 열린불교아카데미 (051-244-0263 / 010-3564-3725)

※ 주차 차량은 묘광선원 바로 옆 유료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2015 부산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생명나눔으로 함께 하는 세상

2015 생명나눔의 날  
제10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2015 10.23 금요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부 희망의 메세지 2부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토크콘서트

월호스님 수월스님 김혜정(바다새) 음악대륙 가이아

※ 무료입장이며, 선착순 1,500명 마감이니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성함, 연락처를 051-853-0429번으로 전화신청, 010-8729-0429번으로 문자신청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100원 희망 저금통  
저금통은 본부 사무실과 각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치료비로 후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051 853-0429

주최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후원 | 부산광역시 대안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BNUK 부산연맹 불부선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BBS 부산불교방송 BTN 밀포신문 불교신문 천태불교  
특별후원 | 부산광역시사회교연협회 한국유니버시티